

“부동산 풀겠다” 말 뿐... 갈수록 ‘썰렁’

■이명박 취임 100일 광주·전남 부동산은

광주 집값 평균 0.7% 상승...전국 평균 절반 그쳐

전남 엑스포 효과 여수·순천지역만 ‘반짝’ 강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부동산시장에는 여전히 한파가 몰아치는 등 시장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여수와 순천 등이 ‘2012년 엑스포’ 유치 효과로 인해 집값이 ‘반짝’ 강세를 보였을 뿐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은 불황이다.

◇광주·전남 등 지방시장 침체 가속화=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광주의 집값은 평균 0.7%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1.5%)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 불가급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집값은 ‘제자리’를 지켰다.

전남은 같은 기간 집값이 평균 1.2% 올라 예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엑스포 유치 효과로 인해 여수(3.2%)와 순천(2.4%)

의 집값만 소폭 상승했을 뿐 나머지 시·군은 사실상 거래 자체가 중단됐다.

이같은 시장 침체는 토지 거래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광주·전남은 4월중 땅값 상승률이 각각 0.11%, 0.19%에 그쳐 불가급세를 크게 밑돌았다.

그나마 여수(0.45%)와 나주(0.42%) 등 일부 지역이 엑스포와 혁신도시 등의 효과로 인해 소폭 강세를 보였을 뿐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땅값이 되레 떨어졌다.

미분양주택 문제도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의 미분양주택은 1만6천924가구에 달한다. 전국도 이미 3월 말 현재 미분양이 13만1천757가구를 넘어선 등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대책없이 쌓여가고 있다.

◇지방 시장 부양책 등 부동산정책 ‘표류’=전문가들은 이같은 지방 시장 침체의 요인으로 정부의 지지부진한 부동산정책을 꼽고 있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간주하며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출범 초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으나 양도세를 부분적으로 바꾼 것 외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당초 시장의 기대를 모은 세제 완화와 재건축 규제완화 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그나마 이달 말부터는 지방의 주택에 대한 판매 제한기간이 완화돼 지방 시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판매 완화만으로는 고사 직전까지 몰린 지방의 건설·주택경기를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새 정부가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광주 등 지방시장은 날이 갈수록 위기가 깊어지고 있어 세제 및 움직를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양제철소 지붕에 1MW 태양광 발전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4층 연 계층상고 지붕에 1M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4일 준공식을 가졌다. 공장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27KW급을 시범용으로 설치한 적은 있으나 1MW 이상 대용량 상업용으로는 포스코가 처음이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연간 일 반주택 약 500가구 정도가 사용 가능한 2천500MWh

를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사진 왼쪽부터 강동수 포스코 노경협의회 광양제철소대표, 박근호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장 박근호, 허남석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정준양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정상훈 포철기연 대표, 김귀중 한국전력공사 전남사업본부장, 조창환 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담당 부소장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운송업체 유가 보조금 인상해 달라”

경유값 50% 급등 불구 보조금 수년째 제자리

전남도 “농업용 면세유 수준 유류 지원” 건의

지속적인 고유가 행진으로 대중교통 및 화물 운송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정부의 유가보조금이 인상분을 감안하지 않은 채 수년째 제자리에서 관련 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4일 전남도와 화물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시내·외 버스의 경우 리터(ℓ)당 316원이 고 화물자동차 287원으로, 이는 지난 2006년 유가가 ℓ 당 1천239원일 때 지원하던 액수와 동일하다.

그러나 유가(경유)는 2006년 1천

239원하던 것이 올 들어 1천890원으로 50% 이상 급등했으나 유가보조금은 동일해 관련 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중교통 및 화물업계는 유가 인상분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연동 인상 등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내·외 버스 업계에서는 유가폭등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전남도에 수차례 걸쳐 유가 인상을 건의하고 있으며, 화물업계에서도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버스업계는 버스요금 협상시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차질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시내·외 버스 및 영업용 화물차량이 사용하는 유류를 농업용 면세유 수준으로 공급·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건의가 반영되면 시내·외버스 및 화물업계가 현재 ℓ 당 평균 1천500원인 농업용 면세유 수준으로 경유를 공급받을 수 있어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기아차 신차 ‘포르테’ 8월에 첫 선

기아자동차는 오는 8월 출시 예정인 준중형 신차 TD(프로젝트명)의 차량스케치를 공개하며 차명을 ‘포르테(FORTE)’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르테(FORTE)는 ‘강하게’라는 뜻의 음악용어에서 모티브를 얻은 차명으로, ‘준중형 시장의 새로운 강자 탄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포르테(FORTE)는 스피드와 힘이 느껴

지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신개념의 준중형차를 기다리는 고객들을 만족시킬 것”이라면서 “젊고 역동적인 기아차 브랜드 이미지를 담아 생동감 넘치는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고객들을 매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차명과 함께 공개된 외관스케치는 스포티하고 미래지향적인 포르테(FORTE)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1,753만~2,715만원

기아차 ‘로체’ 가격 공개

기아차가 전국 영업지점을 통해 사전예약을 접수받고 있는 로체 이노베

이션의 가격을 4일 공개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로체 이노베이션의 가격은 2.0 모델이 1천753만원~2천350만원, 2.4 모델이 2천715만원이며 2.4 모델은 섀프트와 고급 내비게이션 등 옵션을 모두 추가하면 2천952만원이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光銀노조 송기진 행장 내정 반발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4일 광주는 행장으로 내정된 송기진 우리은행 부행장에 대해 내정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행장 선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은행 노조는 이날 우리은행 출신인 송 부행장이 광주은행장 단독 후보로 확정된 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철저농성에 들어가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노조는 후임 광주은행장이 지역과 광주은행의 정서를 잘 아는 광주은행 출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행주위(행장추천위원회)가 우리 은행 출신의 송 부행장을 내정한 것

은 ‘무늬만’ 행주위원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광주·경남·우리은행장이 모두 우리은행 출신으로 채워진 것은 ‘나눠먹기식’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이는 우리은행 중심의 합병 의도를 드러내며 것으로 통합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회심 노조위원장은 “이번 행장 내정은 이명박 정권의 코드인사 결정판”이라며 “차기 행장 선임과 관련된 의혹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지역 단체들과의 연대 등을 통해 송 내정자의 선임을 끝까지 막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안명수 광주축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이사에 선임

광주축협 안명수(65)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이사에 선임됐다. 3선인 안 조합장은 7월부터 4년간의 새로운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00년부터 농협중앙회 이사

와 감사위원직을 맡고 있는 안 조합



장은 광주농고를 졸업한 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으며, 1966년 대성농장 장장을 시작으로 축산업계에 첫 발을 디딘 후 현재까지 40년간 외길을 걸어왔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대기업·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115명

광주 IT 제품·기술 구매 상담회

전국에서 최초로 대기업과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115명이 광주를 방문, 광주클러스터추진단의 미니 클러스터회원업체와 광주정보문

화산업진흥원의 IT분야 기업체 등 47개 업체대표들과 제품·기술 구매 상담회를 갖는다. 광주클러스터추진단(단장 김영

집)과 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윤종용),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영주) 등은 4일부터 5일까지 나주의 흥중골드스파리조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품·기술 구매상담회와 구매조건부 공동연구개발사업의 확대 및 발전전략에 관한 워크숍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A/S까지 최고의 품질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유림정공(주)

주요 사업: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환경, 조경, 인테리어, 시설관리, 유지보수, 컨설팅, 설계, 시공, A/S,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에너지관리, 시설관리, 유지보수, 컨설팅, 설계, 시공, A/S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동 1-1-1 유림정공빌딩 10층

전화: 010-9999-9999

팩스: 010-9999-9999

이메일: yulim@yulim.co.kr

홈페이지: www.yulim.co.kr

ANYCHE CHAIR

기술과 정제를 바탕으로한 최자 전문 생산업체 - 유림정공

Anyche

기술과 정제를 바탕으로한 최자 전문 생산업체 - 유림정공

Anyche